

2015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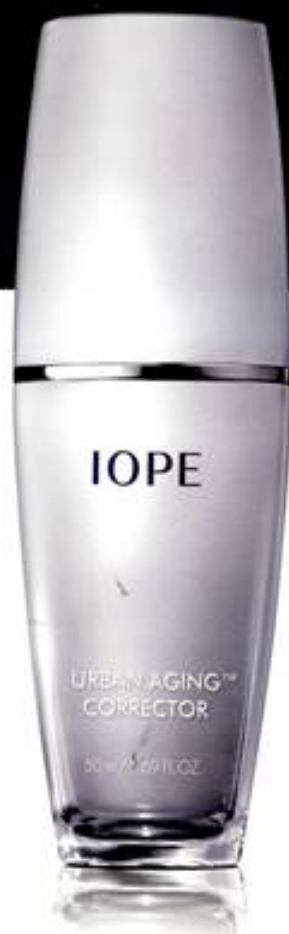
# 성평등을 모두를 위한 진보다

주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기획실행위원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1호 전화 02)313-1632 메일 kwau@women21.or.kr 홈페이지 38women.co.kr

후원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민주회계청가24년 KBS MDC SBS EBS [Q515] YTN 한겨레신문사 여성신문 OmyNews 28A101  
협찬 유한킴벌리 AMOREPACIFIC Pulmuone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HANSEM Kwangdong univera HAAN

IOPE

주름·미백 기능성



##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 아이오페 어반 에이징™ 코렉터

피부 생명 활동 원리에서 안티에이징의 답을 찾다  
아이오페는 당신의 피부에서 도시형 노화\*의 솔루션을 발견  
했습니다. 스트레스, 유해환경으로 나빠지는 피부를 바로잡는  
어반 에이징™ 코렉터. 시간에 의한 노화는 물론 도시형 노화\*  
까지- 당신의 피부를 빈틈없이 관리해줍니다

착착함, 거친결, 잔주름을 빈틈없이 케어하는 3중 바이오 효과  
어반 에이징™ 코렉터의 집중 케어로 피부의 톤, 결, 주름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촉촉하고 매끈한 피부로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경험하세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피부가 깨끗하고 촉촉해진 것을 느꼈다 85.71%  
피부톤이 선명해진 것을 느꼈다 80.95%

피부결이 매끄럽고 부스럼이 사라진 것을 느꼈다 90.48%

2014년~2015년 총 4차 소비자조사 결과 / 조사기간: 11월 10일~12월 10일 / 총 1,000명 설문조사

전국 약국과 대형 마트에서 아이오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 | [www.ioppe.co.kr](http://www.ioppe.co.kr)

## “자연의 맛과 친구되기”

상추를 싫어하는 현민이를 위해  
귀여운 상추 친구를 선물해주었습니다.  
직접 키워보고 만져보고 놀면서  
현민이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연의 맛과 친구가 되어 갔습니다.  
아이가 당장 먹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선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연의 맛은 평생을 갈 친구니까요.

*Pulmuone*



김금옥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성평등 가치를 확산해 나갑시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제31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사회는 너무 큰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사회 곳곳에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필요한 해입니다.

1985년부터 시작한 한국여성대회는 올해로 31회째입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이 많이 알려 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현실은 차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폭력과 차별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여성차별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인 본질은 더 열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속에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어가고 여성 빈곤화 심화, 여성의 신체왜곡, 여성운동에 대한 역풍과 여성혐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결의한 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 실현을 목표로 우리나라도 성주류화가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주류화가 남성과 여성의 양적인 균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국가의 젠더정책이 성평등의 목표를 기계적 양성평등으로 해석하고 불평등을 떠받들고 있는 젠더 구조를 외면한 채 집행 될 우려가 높습니다.

오는 3월 9일부터 유엔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베이징 +20이 되는 해로 북경대회의 행동강령을 이행 점검합니다. 오는 9월 유엔 총회에는 포스트 2015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가 수립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지속가능개발이 젠더의제와 어떻게 결합 될 때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한국여성대회는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성평등은 잘못된 불평등의 질서를 바로 잡아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진보입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해 나갈 사회적 협력과 연대의 아름다운 대열을 만들어 갑시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오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활동가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제31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제31회 한국여성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5년 제1회를 시작으로 점차 규모가 커져 이치림 대규모 행사로 자리 잡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참여 단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오는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여성 성폭력 사태, 인터넷에 만연한 여성혐오,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과 직장내 남성중심의 문화와 유리천장, 돌봄노동의 사회화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현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가 개최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주년을 앞두고, 과연 우리나라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 성평등이 어느 정도 제고 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경여성대회 20주년을 맞아 2015년을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약의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여성들의 권익과 여성운동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2015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의미 있는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위하여!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길목에 뜻 깊은 행사를 주최 해 주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김금옥, 정문자 대표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출범된 후 지난 2년간 여성정책 전반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 등을 통해 여성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54.9%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혼·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올 3월말 출범될 예정으로 이혼·미혼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가 최초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재범률이 줄어드는 등 여성·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UN이 천명한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는 슬로건은 양성평등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미래전략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차별이 극복되어 모든 사회구성원의 충분한 잠재력을 깨울 수 있고, 나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차별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더욱 더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15년은 여성가족부의 모법(母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해입니다. 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한 차원 끌어올려,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 ‘양성 모두의 부처’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 31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대회가 어느덧 31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다.

매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국여성대회가 어느덧 31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는 올해 한국여성대회 슬로건에도 나타나듯이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질서를 바로 잡아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모두를 위한 진보이며 역사적인 과제라는 것에 여러분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서울시는 여성이 존중받고 차별 없이 행복을 누리는 ‘함께 행복한 삶’의 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여성이 안전한 ‘여성안심특별시, 서울’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여성 여러분의 열정적인 활동을 돕고, 또 여러분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여성이 행복한 서울, 천만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정의 온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2015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드립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힘을 모아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지도 어언 31년. 흐르는 세월만큼 이나 한국 여성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빨리,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여전히 여성들에게 일과 가족의 병행은 힘들고, 알바와 비정규직을 시계추처럼 왕복하는 노동도 피곤합니다. 그래도 우리 여성들은 여성대회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희망을 주고, 받고,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는 구호도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여성운동은 단지 여성만이 잘 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여성운동이 성과를 거둘수록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도처에서 사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래서 대안사회를 실현해가는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해방이 바로 남성해방이 되는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한국여성대회에서 만난 여러분들! 함께 즐기고, 함께 소리 지르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면서, 우리가 꾸는 꿈을 조금씩 실현해갑시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노래를 환기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꾸는 꿈을 실현하는 긴 과정에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3.8 세계여성의 날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 5천여 명의 여성노동자가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이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도 없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 환경도 매우 불합리하여 늘 생활고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 보장, 임금인상, 10시간 노동보장, 작업환경 개선등의 권리를 요구하며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서 벌인 시위는 그야말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단체들은 3월 8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으며, 유엔은 1975년에 3월 8일을 '국제기념일'로 제정한 후 매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대회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해방 후 부활하기도 했으나, 1948년 이후 사회적 격변과정에서 맥이 끊어졌습니다.

1985년 여성평우회 등 14개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한 후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했고 2015년에도 3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 31회가 되는 한국여성대회는 전국의 여성단체들을 비롯하여, 주부, 대학생, 시민,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동적인 대회입니다.



2015년 3월 8일 (일)  
오후 1시~5시 광화문광장

---

13:00\_14:00

퍼플워킹 '한국여성대회 가는 길'

---

14:00\_15:00

기념식

\* 사회 : 권해효(여성연합 홍보대사 · 배우), 최광기(전문사회자)

- 인사말
- 축사
- 연대의 발언
- 성평등 디딤돌 · 걸림돌 발표
-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선언과 퍼포먼스
- 축하공연 : 박해미(뮤지컬배우)

---

13:00\_17:00

퍼플난장 '성평등, 이 길'

18개 단체가 진행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문화행사 '여성화가 9인전'

- 2015.2(월) ~ 22(금) /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성평등, 우리가 걸어온 길' 캘리그래피展 온 · 오프라인 전시

- 2015.3(월) ~ 3.27(금) /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블로그, 페이스북 등 디지털 전시



# 퍼플워킹, 한국여성대회 가는 길~

2015년 3월 8일에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퍼플워킹'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바라면서 한국여성대회(광화문 광장)로 가는 길을 함께 걷는 행사이다.

- 1**  
**코스** 출발 : 종각역(8번 출구) → 인사동 입구 → 인사동 거리 → 평화비(일본대사관앞) → 세월호 농성장(광화문 광장) → 한국여성대회 행사장(세종대왕 동상 앞) [40분 예상]
- 2**  
**코스** 출발 : 을지로입구역(8번 출구) →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시청광장 → 프레스센터 → 세월호 농성장(광화문 광장) → 한국여성대회 행사장(세종대왕 동상 앞) [30분 예상]
- 3**  
**코스** 출발 : 서대문역(5번 출구) → 경향신문사 앞 → 덕수궁 길 → 대한문 → 세월호 농성장(광화문 광장) → 한국여성대회 행사장(세종대왕 동상 앞) [30분 예상]

※일시 : 2015년 3월 8일(일) 오후 1시~오후 1시 55분

## 프로그램

|              |           |                                                                                                                                                            |
|--------------|-----------|------------------------------------------------------------------------------------------------------------------------------------------------------------|
| 오후 1시        | 각 장소에 집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코스 : 종각역(8번 출구)</li> <li>2코스 : 을지로입구역(8번 출구)</li> <li>3코스 : 서대문역(5번 출구)</li> <li>드레스코드 및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 준비</li> </ul> |
| 오후 1시 10분    | 걷기 출발     | 각 코스별로 인도 신나게 걷기                                                                                                                                           |
| 오후 1시 50~55분 | 광화문 광장 도착 | 세월호 농성장 앞을 지나며 애도와 연대의 마음 표현                                                                                                                               |
| 오후 1시 55분~   | 한국여성대회 참석 |                                                                                                                                                            |

## 워킹코스



## 퍼플난장 '성평등, 이 길'

|    | 단체명(가나다 순)              | 부스내용                                                                                                                                                                                     |
|----|-------------------------|------------------------------------------------------------------------------------------------------------------------------------------------------------------------------------------|
| 1  | 안내                      | 한국여성대회 안내 등                                                                                                                                                                              |
| 2  | 20대 페미니스트 자율학습모임 폐자     | 폐자모임 홍보 및 페미니스트 뱃지 판매                                                                                                                                                                    |
| 3  | ICOOP(아이쿱)생협            | '농업을 지키는 여성들' 홍보 / 체험 부스                                                                                                                                                                 |
| 4  | 군인권센터                   | 군 성폭력 방지 캠페인 및 군성폭력상담소 기금 마련 전각 전시회                                                                                                                                                      |
| 5  | 비온뒤무지개재단                |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높이기 퀴즈                                                                                                                                                                       |
| 6  |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 1. 단체홍보<br>- 단체홍보물배포<br>2. 참여프로그램<br>- 두런두런 제작웹툰<정상컴플렉스>빈말풍선 채워 인증샷찍기<br>- 핫소리격파: 외모불평, 성차별적 발언 등 일상에서 불편했던 말을 편치백에 붙여 편치날리기<br>3. 물품판매<br>- 웹툰<정상컴플렉스>캐릭터 / 페미니스트 뱃지판매<br>- 페미니스트 티셔츠판매 |
| 7  | 서울여성노동자회                | 여성노동 희망나무 키우기                                                                                                                                                                            |
| 8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1. 자활물품판매<br>2. 한국사회 성매매 성산업 실태 관련 전시<br>3. 수요차단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방지법 전영개정 촉구 서명                                                                                                               |
| 9  | 알바노조 여성주의 분회 <비정>       | 여성노동자의 생애주기별 차별 말하기, 스티커 설문조사 등                                                                                                                                                          |
| 10 | 여성심장질환연구회               | 건강 상담, 혈압측정                                                                                                                                                                              |
| 11 | 이화민주동우회                 | 이화여성농업인 살림터                                                                                                                                                                              |
| 12 | 퀴어문화축제                  | 2015 퀴어문화축제 홍보                                                                                                                                                                           |
| 13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 정리수납 체험 부스                                                                                                                                                                               |
| 14 |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 / 성차별 깨부수기 격파 외 참여형 프로그램 등                                                                                                                                                           |
| 15 | 한국여성민우회                 | 1.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 여성주의 자부심 끝말잇기<br>2. 민우회가 제안하는 2015년 파이팅 이슈전<br>3. 바자회                                                                                                                 |
| 16 | 한국여성의전화                 |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사소한 고인전당포> - 스톱강제법 제정 및 정당방위사건 지지 서명 등                                                                                                                |
| 17 | 한국캘리그래피협회               | 즉석 캘리그래피재능나눔                                                                                                                                                                             |

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  
카운트'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모두 없어졌다는 선부른 이야기들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그나마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10년 넘게 OECD 1위를 달리고 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하며, 여성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유리천장은 견고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을 영역별로 숫자로 표시한 '퍼플카운트'를 통해 여성의 현실을 좀 더 쉽게 알리고, '성평등'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공유되길 바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앞으로 연중 캠페인으로 더 많은 영역의 여성 현실을 '퍼플카운트'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Equality for women is progress for all”

2015년을 맞이한 오늘의 지구촌 공동체는 성평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경제, 환경, 젠더 정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빈곤과 불평등을 퇴치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Post-2015 시대를 향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성불평등은 빈부격차를 낳는 가장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문제인식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15년 올해는 1995년 개최된 북경세계여성회의 이후 20년 동안 성평등과 여성세력화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를 다 함께 검토하면서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를 진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성평등 실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평등을 위해 나선다는 것은, “그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게 하기” 위한 진보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에 2015년 3월 8일 제31회 한국여성대회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실종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발탁감과 불안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삶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여성, 소수자에게 돌리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의 지위는 이미 동등해졌고, 차별은 거의 없어졌다고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년간 50% 내외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평균임금은 약65만원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여전히 양육의 책임은 여성에게만 전가되고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성매매는 더욱 산업화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성폭력 피해의 약 90% 이상이 여성에게 일어났으며, 가정폭력·성폭력 발생률, 신고율도 줄어들지 않는 등 여성폭력은 우리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반여성폭력 법·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대표성 역시 열악합니다. 여성 국회의원은 15.7%에 불과하고, 42개 정부기관 공무원 중 여성 과장은 남성 과장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남성중심문화, 강화되는 성별분업 구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모든 인간은 사회에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평등한 권리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평등한 세상은 여성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질서를 바로잡아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진보이며 역사 발전인 것입니다.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이자 책무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5년 우리는

- 여성차별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여성 세력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 젠더불평등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차별들이 드러나고 있어 젠더, 세대, 계급 등이 교차하는 여성운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여성만이 돌봄과 재생산 영역을 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주의 경제 담론에 기반하여 '돌봄'과 '젠더'를 중심으로 한 복지국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여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사회 제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성평등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인권과 정의 실현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본 척도입니다.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받는 세상, 일상생활 속에 성평등 가치가 실현되는 세상, 전쟁과 갈등이 사라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15년 3월 8일

제31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일동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여성이 가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무급 노동이었던 '가사노동'은 사회·인구학적 구조변화 속에서 유급 가사노동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는 노동관련법에 적용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노동가치는 저평가 되고 있으며, 호칭도 직업이 아닌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호명되어 왔다. 개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사노동, 이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은 2004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창립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전가협 출범 이전에는 가사노동자의 노동현실이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전가협은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드러냈고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데 기여했다.

### 가정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입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동의 가치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전가협은 2004년부터 스스로 '가정관리사'로 호칭을 정하고 매년 "가정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라고 불러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일의 의미와 가치를 재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식모들', '수상한 가정부' 등 드라마 제목 변경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식모나 가정부라는 단어의 비하적 의미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드라마 제목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2013년에 제정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매년 6월 12일에는 가사노동 가치의 재평가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돌봄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가사노동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에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 건강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 건강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2014년에 가사노동업무매뉴얼 '가사서비스 노동기준을 세우자: 계약서를 씌시다'를 발간하여 현장에서 활용되면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을 보호하며 고객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사노동자, 법적 노동자로 인정되는데 기여

가사노동자는 현재 노동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전가협은 공식 출범 이전부터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현재도 보호방안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ILO에서 2011년 통과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 통과 과정에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지도록 사회적 이슈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이 협약이 국내 비준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4일에 고용노동부는 가정내 돌봄서비스 가운데 가사관리서비스에 관한 제도화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가사관리서비스를 정부가 인정하는 정식 업체를 통해 이용하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가사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전가협 활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 자긍심과 자부심 있는 당사자 조직

전가협은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자긍심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단합대회와 소모임 운영을 통해 홀로 일하면서 과편화되기 쉬운 노동자들이 서로 기대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적 공간을 열고 있으며, 회원들은 스스로 가사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이 부끄럽지 않으며 이 사회가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노동임을 인지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전국 12개 지부 중에 6개 지부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스스로 주인되는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 호혜와 나눔의 돌봄 생태계 구성에 기여하고 있다.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약력

- 2003. 7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추진단' 구성
- 2004. 11. 2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창립 총회
- 2005. 7 저소득층 가구 가사·보육·노인돌봄서비스 제공사업 시행
- 2005. 10 ~ 저소득층가구 무료보육서비스 제공사업 시행
- 2006. 4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의 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
- 2010. 6 돌봄노동자 사회적 인식개선 캠페인(이후 매년 진행)
- 2010. 8 '돌봄노동자 법적보호 방안' 토론회
- 2010. 10 제1차 돌봄여성노동자대회
- 2011. 4 KBS 드라마 '식모틀' 제목변경 요구
- 2011. 1 ~ 12 ILO 가사노동자 협약 통과 및 비준 촉구 대응 활동
- 2011. 10 제2차 돌봄여성노동자대회
- 2011. 12 ILO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 촉구 국제 캠페인
- 2012. 10 제3차 돌봄여성노동자대회
- 2013. 6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행사 개최
- 2013. 8 SBS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제목변경 요구 활동
- 2013. 10 세계가사노동자연맹(DWF)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창립총회 참석
- 2013. 11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및 건강 소책자 발간
- 2014. 6. 16 제2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기자회견
- 2014. 4 ~ 11 가사노동업무매뉴얼 연구, '가사서비스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발간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문제를 공론화한 피해자와 조력자,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이를 도운 동료(이하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피해자와 조력자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여성·노동·인권단체는 2013년 3월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했다.

대책위는 관련 법률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포착, 이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면서 정치권, 여성·노동계 단체 및 국제 연대를 통해 시민의 지지를 모았다. 그 결과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이 철회되어 사업장으로 복귀했지만, 피해자는 민사소송, 조력자는 행정소송 중이다. 또한, 대책위는 르노삼성자동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직접 고발하고,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피해자와 조력자의 고소와 재판동행을 지원하는 등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희롱 이후 불이익 조치가 연동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단계적으로 규율하는 고용평등법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여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맞선 '무지개농성단'



'서울시민 인권현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구범으로, 인권변호사 출신인 시장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4년 11월 30일에 서울시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이 '전원합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차례 토론과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민이 직접 만든 '서울시민 인권현장'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가 공표를 거부함에 따라 성소수자와 인권단체로 구성된 '무지개농성단'은 서울시청 1층 로비에 서 12월 6일부터 6일 동안 집거농성을 벌이면서 '성

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이 포함된 '서울시민 인권현장' 선포를 요구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조차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집단지 커밍아웃'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임을 당당히 알려냈고, 시민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지와 연대를 끌어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공감대를 넓혔고, 행정부의 인식수준과 일하는 방식에 대해 시민들과 상충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삶을 영화로 알려낸 '카트' 제작자 심재명, 감독 부지영



영화 '카트'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이에 맞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한국사회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 '카트'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인공이 "반찬값이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왔다"는 대사는 여성노동자가 더 이상 생계보조자가 아니라 생계부양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파업 전후 과정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끈끈한 연대의식을 보여주었다.

## 지역유지의 성폭력을 고소, 도리어 피고인이 되었으나 결국 무죄를 밝혀낸 김○○ 씨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임대중인 지역농원 사업장 정보씨로부터 총 3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김○○씨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의 지역 사회생활 등을 고려하여 참고 지냈고, 지역유지인 정보씨는 주변에 알리면 도리어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김○○씨는 더 많은 피해여성이 발생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2년 12월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약 2년여간 법정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른 여성의 증언신문, 지역 주민과 여성단체의 지지와 연대속에서 마침내 2014년 10월말, 대법원은 성폭력 무고죄는 무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인 그녀의 용기있는 행동과 실천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와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통념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 파업 11개월째,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투쟁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산합동양조(생탁) 여성노동자 5인



대책위가 구성되어 생탁불매운동을 시작했으나 사측은 문제해결 노력없이 지난해 9월말에 파업참여 노조원 10명에게 약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기파업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파업 참가자 9명 중 5명은 여성으로 사측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여성고용 안정과 여성노동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막걸리 매출 전국 2위, 연매출 200억원으로 부산 대표막걸리 '생탁'을 만드는 부산합동양조(생탁) 장립제조장 노동자 45명은 주 5일제 근무준수, 청년 연장, 고용안정화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4월 2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생탁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잘 알려졌다. 성추행도 만연한 곳으로 관리이사가 여성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성추행을 자행, 현재 검찰 조사중이다. 파업 100일 즈음인 지난 8월 중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생탁부산시민

## 여성직장인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서적, 감정적 계기를 보여준 드라마 '미생' 윤태호 원작자, 정운정 작가



그동안 많은 드라마에서 여성들은 재벌 아들과 연애하는 미모의 신데렐라 혹은 지나치게 야심찬 비인간적인 여성상으로 등장했고, 회사에서 여성들의 동료나 상하 관계는 사랑을 다투는 경쟁관계가 많았다. 그러나 드라마 미생에서 그려진 여성들의 모습은 다르다.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엄정하며 균형감 있게 판단하고 회사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여성후배에게 적절한 조언과 기회를 주는 재무부장, 역시 좋은 평판속에서 동료들과 의리도 있고, 리더십도 높으며 성희롱을 하는 상사에게 당당히 맞서지만, 맞벌이하면서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전차장, 능력 있고 자신의 삶에 비굴하지 않게 도전하고 여성이라고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는 신입사원 안영이의 모습은 이제까지 다른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롭고 신선하지만 많이 존재하는 여성 직장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윤태호 원작자와 극본을 쓴 정운정 작가는 이제까지 드라마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여성 직장인의 능력 있고 당당하고 따뜻한 모습과 그들이 겪는 성차별, 성희롱을 구조적 시각에서 다루었다. 또한 이들이 경험하는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와 성희롱 문화의 어려움에 대한 섬세한 묘사는 여전히 임금노동에서 수적으로, 문화적 대변능력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는 여성직장인의 문제를 사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서적, 경험적 계기를 보여주었다.

드라마 '미생'에서 표현된 기혼 여성 직장인의 삶, 여성 성차별 구조, 여성들의 직장 선후임으로서의 인간관계, 여성 직장인의 일하는 모습, 성희롱 등을 잘 그려낸 시선에 의미를 부여한다. 앞으로 미디어와 드라마에서 여성에 대한 묘사들이 현실을 반영하고 성평등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군대 내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도리어 결백을 주장하는 노 소령



노 소령은 직속 부하인 오 대위가 육군15사단으로 전입한 첫날부터 이군이 와서 불편하다며 '후방에서 커피만 타다가 뭘 알겠냐'는 등 일상적으로 이군을 차별하는 발언을 하고 모욕하였다. 또한 오 대위에게 성추행을 일삼았으며, 오 대위가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하여 쉬지도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오 대위는 2013년 10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공판과정에서 노 소령의 성차별과 성추행은 십여 명의 증인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가해자인 노소령은 잘못을 반성하는 대신 도리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사건을 취재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고 오 대위를 다시 한 번 모욕하였다. 현재 노 소령은 항소심에서 2년 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죽음조차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는 중소기업중앙회



24개월 동안 7번의 쪼개기 계약,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임직원이 성추행·성희롱한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린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3일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고 이후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 끊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내부 인사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애

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여성노동자에게 거짓으로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스스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라고 자임하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으며, 자체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법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사 황○○, 서○○, 남○○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 황○○, 서○○, 남○○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인 윤필정씨 2살 재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가 밝힌 근거는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및 직접적 살해위험을 하였지만 실제로 피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고 나중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생명의 위험을 당하더라도 무작정 참거나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무시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인권탄압과 정규직 노동자의 계약직 강제 전환, 조합원 불법 해고 등을 자행한 '레이테크코리아'



레이테크코리아는 2014년 6월 정규직 직원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변경하려다가 이에 반발해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비정규직 전환을 철회한 회사다. 이후 회사는 일방적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등 산업안전법을 위반했고, 급기야는 여성휴게실, 탈의실에 불법적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 후 5개월간의 파업으로 10월 24일에 합의는 이루어 졌으나, 합의시점인 11월말이 다가오자 노사 공동답사 후 작업장을 결정하기로 한 합의정신과는 달리 합의파기 수준의 열악한 공간을 일방적으로 임대하여 근무명령을 통보하였다. 또한, 작업장이 협소하다는 핑계로 작업형태를 변경해 노동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고, 창문이 없어서 환기와 배기가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호흡기 질환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회사명령에 순종하라는 불법적인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였다.

## 10대 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퇴행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



대법원은 2014년 11월 24일, 중학교 2학년이었던 15세 청소년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던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무죄취지 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자인 연예기획사 대표는 줄곧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했고, 이러한 위계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성적 관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해자에게 입은 성폭력 피해를 주변에 알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이 피해자의 자발적 의지와 결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피해에 길들여진 피해자의 행위를 문제 삼아 애초 성폭력의 시작과 그 과정을 묵인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겠다는 태도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 외모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프로그램 'Let 美人'(Story on)



케이블 방송사 Story on의 'Let 美人'은 신청자에게 성형수술과 다이어트, 헤어 메이크업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과도한 의료 광고를 통한 왜곡된 의학 상식을 전달하고, 성형수술의 효과를 맹신하도록 만들고 있다. 출연자외모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구실로 출연자에 대한 차별,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상황을 묵인하고 있으며, 언어뿐만 아니라 화면이나 자막을 통해서도 출연자들의 외모 콤플렉스를 부각시킨다. 턱, 배, 가슴 등 '비정상'이라고 여겨지는 출연자의 신체 부위는 카메라를 통해 지나치게 노출하거나 제자리 뛰기를 해 서 살이 흔들리도록 만들고 그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 등 최대한 출연자의 문제점을 드러내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또한 성형수술을 통해 인생역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타지를 심어주면서 '턱주가리네', '프랑켄슈타인네' 등 외모콤플렉스를 부각시키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외모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 여성운동상 상금후원 명단

|      |                        |
|------|------------------------|
|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권미혁  | 사단법인 시민 이사장            |
| 권인숙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산연구소 '울림' 소장 |
| 김경영  | 경남여성회 대표               |
| 김금옥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 김희은  |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
| 나지현  |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 박기남  |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
| 박봉정숙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 박은순  |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
| 박진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 성평등연구소 소장  |
| 박차옥경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 안김정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 왕인순  | 서울여성노동자회 이사장           |
| 유일영  |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장            |
| 윤정숙  | 포항여성회 회장               |
|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 이진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 이찬진  | 변호사                    |
| 이철순  | 알하는여성아카데미 이사장          |
| 임운옥  |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
| 장수진  |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
| 정경숙  | 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 정문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 조선희  | 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 지은희  |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장          |
| 진민자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
| 최병일  |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 한국염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특별전

# 성평등, 우리가 걸어온 길

## 캘리그라피展

전시안내 : 2015. 3. 2(월) ~ 2015년 3. 27(금) /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 여성, 캘리그라피를 입다

#### 한국캘리그라피협회와 함께하는 제31회 한국여성대회

올해 한국여성대회는 한국캘리그라피협회와 함께 한다. 유현덕 한국캘리그라피협회 대표의 작품인 여성대회 슬로건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는 이미 포스터 및 각종 홍보물을 통해 소개되었다. 오늘 기념식에서도 유현덕 대표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협회 작가들이 참여하는 재능나눔 행사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유현덕 대표를 비롯한 한국캘리그라피협회 소속 31명의 작가가 역대 한국여성대회 슬로건을 캘리그라피로 그린 총 31개 작품이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3월 27일까지 여성미래센터 1층 허스토리홀에서 전시 중이다. 지난 30년 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꿈과 함성, 발걸음과 소망을 오롯이 담은 여성대회 슬로건은 캘리그라피 작품 속에서 다시 태어났으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여성들이 걸어온 자취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전시이다. 캘리그라피 작업을 위해 슬로건을 마주한 작가들은 그 슬로건이 탄생한 배경이 된 시대적 상황을 되짚어보고 재해석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30년 동안 씁없이 걸어온 우리 여성들의 발자취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한국캘리그라피협회

캘리그라피를 통해 한국적인 콘텐츠 개발과 상품화, 디자인과의 폭넓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캘리그라피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협회는 해외교류와 전시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알림이 역할과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정기 공모전을 통해 개인 역량과 캘리그라피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캘리그라피 교육과 학술회 등을 통해 디자인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단체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한국캘리그라피협회 [www.kogda.com](http://www.kogda.com))

민중, 민중, 민중과  
함께하는  
여성운동

1985년 1회 대회, 최정호 작

민주, 민주, 민주  
정권  
정권  
여성해방  
이룩하자!

1985년 2회 대회, 박정호 작

민주정권  
여성운동

1987년 3회 대회, 노은환 작

여성이라!  
민족자주화의  
대열로

1989년 4회 대회, 안희복 작

전통한 삶의 사냥을 위하여

한반도의 사냥꾼, 그대에게 고사한다

1989년 5회 대회, 김희철 작

정권  
여성

1993년 9회 대회, 조은아 작

여성이라!  
정권

1993년 10회 대회, 최은환 작

정권  
여성  
20

1993년 11회 대회, 최은환 작

정권  
여성  
정권

1995년 11회 대회, 고영희 작

여성, 열악한 21세기  
복합적인 현실 속에서

1995년 12회 대회, 이종필 작

1997년 14회 대회  
가자!  
21세기  
여성의  
시대로

1997년 13회 대회, 조은아 작

가자!  
여성이라!  
고용안정, 인권이 보장되도록  
평등의 시대로!

1999년 14회 대회, 최은환 작

남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2000년 16회 대회, 최은환 작

남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2001년 17회 대회, 최은환 작

선대배  
민주주의  
보유  
공공선언

2002년 18회 대회, 최은환 작

여성운동  
여성운동

2003년 19회 대회, 최은환 작

남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2004년 20회 대회, 최은환 작

행복한  
평등한  
가족  
행복한  
여성

2005년 21회 대회, 최은환 작

행복한  
평등한  
가족  
행복한  
여성

2006년 22회 대회, 최은환 작

행복한  
평등한  
가족  
행복한  
여성

2007년 23회 대회, 최은환 작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2008년 24회 대회, 최은환 작

여성이라!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2009년 25회 대회, 최은환 작

행복한  
평등한  
가족  
행복한  
여성

2010년 26회 대회, 최은환 작

행복한  
평등한  
가족  
행복한  
여성

2011년 27회 대회, 최은환 작

행복한  
평등한  
가족  
행복한  
여성

2012년 28회 대회, 최은환 작

2013  
여성  
행복한  
평등한  
가족  
행복한  
여성

2013년 29회 대회, 최은환 작

행복한  
평등한  
가족  
행복한  
여성

2014년 30회 대회, 최은환 작

행복한  
평등한  
가족  
행복한  
여성

2015년 31회 대회, 최은환 작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초대전

# 여성화가 9인展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화가 9인이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에 모였다.

2009년 여성미래센터 기금마련을 위해 '여성화가 7인展'을 개최한데 이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6년 만에 여성화가전이 다시 열렸다. 이번 전시를 위해 김경인, 김금화, 김현숙, 김현숙, 손현숙, 예민숙, 조귀남, 하창희, 황의성 등 여성화가 9인의 작품 총 18점이 전시되었다. 화가이자 시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현숙 화가는 "작품 속에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희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9인의 작품 모두 각자의 개성과 메시지를 담겨있으면서 동시에 희망과 사랑이 주는 따뜻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제31회 한국여성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평등도 '여성화가 9인展' 작품 속 자연의 모습처럼 싱그럽게 피어나길 꿈꾸고 희망한다.

전시안내 : 2015. 2. 2(월) ~ 2015. 2. 27(금) /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그늘아래에 | 45.5x45.5  
oil on canvas 김경인 작

### 김경인

- 개인전  
제1회 김경인 개인전 (인사아트포리자)  
제2회 김경인 개인전 (인사아트포리자)  
제3회 김경인 개인전 (인사아트포리자)  
제4회 BLANC 2014 (그랜드 갤러리)  
제5회 김경인 초대개인전 (지음 갤러리)
- 국내외 그룹전- 일본 북큐슈 초대전 외 100여회
- 수상전-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Art Exhibition 수상전 외 다수
- 현재-그림에세이전화원 서초미술화원, 용산미술화원, 수다화화원.



KIM KYOUNG IN



KIM KEUM-HWA

### 김금화

- 개인전  
제1회 김금화 초대개인전 (인 갤러리)  
제2회 BLANC 2014 (그랜드 갤러리)  
제3회 KAF 2014 (그랜드 갤러리)  
제4회 김금화 초대개인전 (지음 갤러리)
- 국내외 그룹전-한·캐나다 현대 미술 작가 초대전 외 100여회
- 수상전-세계 미술 작가 창작 공모대전 수상전 외 다수
- 현재-늘그림회 / 칠세회 / 세계작가교류협회



생의 한가운데 | 53.0x45.0 | oil on canvas 김금화 작



말없이 그리움 | 53.0x41.0  
watercolor on paper 손현숙 작

### 손현숙

- SON-HYUN SOOK 초대개인전 (지음 갤러리)
- 손현숙 개인전 경인미술관
- 한국수채화 공모대전 수상전
- 용산 국제아트페스티벌
- 서울 국제미술제
- 아름다운 수채화전
- 대한민국 수채화대전 수상전
- 현재-수사당회 / 용산미술협회 / 한국문인협회 회원



SON-HYUN SOOK

# 여성화가 9인전



KIM HYUN SOOK



오월이 그리워 | 70.0x39.0  
watercolor on paper KIM HYUN SOOK 作

## 김현숙

- 환경 미술협회 서울여성 미술대전수상전
- 그린회 물이따가 전시회
- 녹색 미술회동제
- 그림여행 참가전
- 사람이합하면 109인 작가초대전
- 수채화사랑작가회참가전
- KIM HYUN SOOK 초대개인전 (지음 클러퍼)
- 현재 - 수채화 사랑작가회 / 금천 여성회 / 그림여행



I DREAMED A DREAM | 91.0x65.2  
oil on canvas KIM HYUN SOOK 作

## 김현숙 KIM HYUN SUK

- 개인전-프랑스 PARIS MARIE DE KOLMSKY 개인전 2회
- 국내외 초대개인전-독일 함스루에 아트페어전 32회
- 국제 그물전-프랑스살레르에서 박람회 한국작가 초대전 50여회
- 국내 그물전 - 한국 미술 협회전 200여회
- 현재-한국미술협회 회원 / 대한한림 홍보이사/영원회, 서인회, 수향회 회원 / 아시아수채화연맹사무국장 / 국제미술협회지구회원 / 前ARTINPLAN EDITOR / 前 월간 미술인 편집 주간

## 예민숙

- 개인전
- 제1회 예민숙 개인전 (인사동 아트빌딩2008)
- 제1회 예민숙 초대 개인전 K&E 갤러리2009
- 제3회 예민숙 개인전 (인사아트프라자2013)
- 제4회 예민숙 초대개인전 (지음 클러퍼2015)
- 그물전-아름다운 만남작 및 다수
- 수상전-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전 외 다수
- 현재-한국 미술협회 / 청미회 / 수디회



아이들의 속삭임 | 53.0x41.0  
watercolor on paper 예민숙 作



YAE MIN SOOK



바람꽃들과 길섶 | 72.5x61.0  
oil on canvas 하창희 作

## 하창희 HA CHANG HEE

- 개인전 아트페어 개인전
- 1회 하창희 개인전 (코엑스)
- 2회 KASF 아트페어전 (GETCO)
- 3회 KASF 아트페어전 (GETCO)
- 4회 KASF 아트페어전 (GETCO)
- 5회 전업작가 아트페어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 6회 하창희 초대 개인전 (지음 클러퍼)
- 수상전-대한민국 수채화대전 외 다수
- 그물전 그림 에세이션 외 60여회
- 현재-서울미술협회/한국전업작가회 / 그림에세이션회 / 한국아수회 회원



수줍음 | 53.0x33.3  
watercolor on paper 조귀남 作

## 조귀남

- 개인전
- 1회 조귀남 개인전 (이화 미술관)
- 2회 BLANC BLEU 2014그랜드 캠페인드 호텔
- 3회 조귀남 초대 개인전(지음 클러퍼)
- 국내외 그물전 -성기보로 한국작가 초대전 외 50여회
- 수상전 -한국 미술회 공모대전 수상전 외 10여회
- 현재-한국미술협회 / 한국여의 수채화가회 / 금천여성회 / 그림 여행 회원



CHO GWI NAM



HWANG UI SUNG

## 황의성

- 개인전 - 8회
- 황의성 개인전 (공평아트센터) / KASF79 (GETCO)
- 황의성 수채화전 (광인미술관) / 황의성 초대개인전 (매곡관)
- KASF71 (GETCO)KASF BLANC BLEU (그랜드 캠페인드 호텔)
- BLANC BLEU 14그랜드 캠페인드 호텔 / 황의성 초대개인전(지음 클러퍼)
- 수상전-세계명화 미술대전 수상전 외 다수
- 국내외 그물 전-한-캐나다 현대미술작가 초대전 외 100여회
- 현재-한국미술협회 / K·출회 / 서인회 / 국제미술협회지구 / 세계 작가교류협회



I DREAMED A DREAM 91.0 65.2  
oil on canvas KIM HYUN SOOK 作

## 지역별 행사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1회 경기여성대회

일시 : 2015년 3월 11일 (수) 오후12시  
 장소 : 일본대사관 앞 집결  
 주관 :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주최 :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민주노동당경기본부 여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기지역본부 여성위원회  
 ※ 프로그램 :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행진일본대사관 → 광화문광장, 경기여성대회 기념식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7회 경남여성대회

일시 : 2015년 3월 7일 (토) 오후1시~5시  
 장소 : 창원 상산아트홀 야외 어울림마당  
 주최 : 경남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 : 사전행사 - 나눔부스 : 시민참여부스  
 1부행사 - 소통마당 : 기념식, 문화공연  
 2부행사 - 평화걷기 대행진 : 시민과 함께 걷기, 길거리 공연  
 마무리행사 - 평등마당 : 다함께 춤을댄스 공연 및 마무리 리듬댄스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광주지역 행사

일시 : 2015년 3월 7일 (토)  
 장소 :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  
 주최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동당, 전성협 호남권역  
 슬로건 :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 그녀들에게 힘을!  
 ※ 프로그램 : 기념식/대회사 / 축하/연대발언 / 3.8상 시상 / 거리캠페인  
 그녀들에게힘을! : 3/4~7일사이 여성노동 현장에서 3.8 의미를 알리고 꽃·물을 나눠주는 행사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2회 대구여성대회

일시 : 2015년 3월 6일 (금) 오후5시  
 장소 :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2차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대구여성광장, 대구미혼모가족협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북구여성회, 대경진보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슬로건 :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 프로그램 : 시민난장 / 여는마당 / 개회사/대회사 / 연대사 / 축하공연/당사자 문화발언 / 성평등 다짐 / 걸림돌 수여 / 여성선언 낭독 / 대동놀이

### ● 3.8 세계여성의 날 107주년 기념 대전여성공동행동

일시 : 2015년 3월 6일 (금) 오전8시~오후6시  
 장소 : 대전광역시청 일대  
 주최 :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목력방지방상담소·시설협의회, 민주노동당 대전지역본부,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민중의힘, 민중민생대전행동(준)  
 슬로건 : 여성노동을 존중하는 문화, 성차별 없는 일터,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대전 - 일하는 여성을 응원합니다  
 ※ 프로그램 : 출근길 거리 캠페인 (38인내 염서와 빵 나눔, 피케팅) / 기자회견 (세대 별 발언 및 퍼포먼스) / 대놓고 말하는 "여성노동" 좌담회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부산지역 행사

1. 어서와~ 3.8 여성의 날은 처음이지?  
 일시 : 2015년 3월 4일 (수) 13시~14시  
 장소 :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캠퍼스 및 부산시민공원  
 주최 :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대학교 성평등상담센터,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 프로그램 : 각국의 여성의 날 행사 및 이벤트 소개, 우리도 받고 싶어요~, 선택 2014

### 2. 2015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6회 부산여성대회

일시 : 2015년 3월 6일 (금) 19시~20시  
 장소 : 서면 (주디스 태화)  
 주관 : 부산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물부리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본부 여성위원회(준),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 프로그램 : 여는 공연(핑거스) / 대회선언/대회사 / 연대사 / 발언 / 축하공연 / 선택 2014 발표 / 제1회 [부산 성평등 다짐들] 발표 / 폐회 공연 (스카웨이커스) / 3.8 선언문 낭독 / 폐회공연 (스카웨이커스) / 3.8선언문낭독 / 폐회사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울산지역 행사

1.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20회 울산여성대회  
 일시 : 2015년 3월 7일 (토) 오후2시  
 장소 : 롯데백화점 입구  
 ※ 프로그램 : 공연 / 여는말씀 / 울산과학대 공연 / 발언 / 선언문 낭독 / 거리행진 / 부스

### 2.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 3.8조직위 기자회견  
 3월 2일 (월) 오전11시 / 시청기자실  
 ● 울산과학대 청소년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연담요청 및 농성장 지지방문  
 3월 3일 오전11시 / 울산과학대

# 지역별 · 단체별 행사프로그램

- 울산과학대 청소년노동자 투쟁 3.8조직위 단체별 간담회 진행, 100인여성선언 진행
- 세월호 조속 인양 촉구를 위한 캠페인  
3월 5일 (금) 오후3시 / 롯데호텔앞
- 세월호 영화상영회 (다방) 3월 10일 (화) 오전10시 / 시민소극장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38대회 '김미화 토크콘서트' 3월 6일 (토) 오후 2시 / 문화회관 2층 대강당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북지역 캠페인

'성평등을 향한 걸음에 함께해요!'

일시 : 2015년 3월 6일 (금) 오후1시 30분 ~ 3시

장소 : 한옥마을 4곳 (전동성당 사거리 - 경대전 앞 - 물레방아 앞 - 풍남광장 앞)

주최 : 군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 : 한옥마을 곳곳 - 단체별 이슈 캠페인 / 풍남광장 · 거리공연, 인사말, 연대발언, 올해의 전북여성운동 디딤 · 걸림돌 시상, 3.8여성선언문 낭독 등

## ● 3.8 세계여성의 날 107주년 제주지역 여성대회

일시 : 2015년 3월 8일 (토) 오후1시 30분

장소 :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주최 :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정의당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제주도연합, 제주평화나비, 서귀포여성회, 민주노총제주본부

※ 프로그램 : 여는말 / 여는공연 / 발언 / 공연 / 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포항대회

은수연의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북 콘서트

일시 : 2015년 3월 13일 (금) 오후3시~5시

장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주최 : 포항여성회 (11개 연대단체)

슬로건 :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 프로그램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 은수연씨의 강연 / 저자와 대화의 시간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8회 인천여성노동자대회

일시 : 2015년 3월 6일 (금) 오후5시 30분

장소 : 부평역 쉼터공원

주최 :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자연맹지부, 민주노총인천본부

### 요구안

- 저임금, 고용불안 조장하는 시간제 일자리 확산 반대
- 감정노동과 돌봄노동의 가치인정 권리보장
-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정책
-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러

- 모든 노동자에게 일생활균형 보장하러

※ 프로그램 : 차별철폐 여성노동자 행진 - 부평시장역 한화빌딩 앞 ~ 부평역 / 본대회 - 대화사, 헌정발언 (연세대기숙사 고용승계 투쟁중인 여성노동자), 공연, 결의문 낭독

## 단체별 행사

### ● 3.8기념 여자의 날(온라인)

일시 : 2015년 3월 1일 ~ 3월 7일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멋지고 용감한 여성들의 어록을 모아 릴레이 연재하는 SNS 퍼포먼스

### ●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할 수 있는 몇가지 일들 (온라인)

일시 : 3월 1일 ~ 3월 7일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외모에 대해 말하지 않기 식당에서 식당 노동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 '여기요' 대신 '차림사님' 이라고 불러보기, 청약대 국민신문고에 최저임금인상 요청하는 글쓰기, 내 주변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면 피해자를 지지하는 첫사랑이 되기 여성단체 회원가입하기, 세월호를 잊지 않기 등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기념할 수 있는 실천들을 제안하는 온라인 액션

### ● '2015 여성노동자 바람선언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3월 6일 (금) 오전11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주최 :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슬로건 : 2015 여성노동자 바람 선언

※ 프로그램 : 여는말 / 70년대 여성노동운동 선배의 바람 / 현장의 바람 / 선언문 낭독 / 포토타임 / 1인 시위 진행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을'들의 당나귀 귀>

일시 : 2015년 3월 7일 (토) 오전11시 ~ 12시

장소 : 고전동 하이베라스 206호

주최 :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안산고용평등상담실, 전가협안산지부,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주안산양자활본, 희망나눔공제회, 생과 통하는 교육협동조합, 한부모 자조모임 '위풍당당'

※ 프로그램 : 재종길 사장님과 함께 하는 여성노동이야기 '을'들의 톡(까놓고 톡(like) 토크쇼

성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함께 가는길,  
제31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합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여성들의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실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성평등은 개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한걸음 앞 선 세상을 위해 iCOOP생협이  
성평등을 지지합니다.

**iCOOP 생협**

2015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1회 한국여성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우리사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3156-7000 원장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1회를 맞는 여성대회의 에너지로 힘과 희망을 얻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길 기원합니다.



여성들이 법과 사회생활에서도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모두를 위한 진보,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한한 신뢰와 마음을 다한 연대를 보냅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평등 사회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투투플라워는 모두  
를 위한 꽃집이다!

투투플라워  
(02-2265-2020)

성평등!  
딸, 아들이 함께  
행복해집니다.

이화민주동우회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함께 걸겠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회전회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회전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회전회 새울터 성남여성회전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전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회전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회전회 의정부여성회 햇살여성상담센터 **강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강남여성장애인연대 강남여성회 김해여성회전회 김해여성회 마산합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회전회 창원여성실업공동체 창원여성회전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전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회전회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회전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모함여성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네트워크 풀뿌리여성마을을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회전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여성회전회 상담소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주여성회전회 군산여성회전회 익산여성회전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남산사회교육센터(마음도서관) 내동사회교육센터(마음도서관) 마산지부, 셋별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노동센터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농협계정소년성문화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여성리더십센터 **새마을여성** **논천주여성공동체** 새울터 동두천새울터 평택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광주여성회전회 부설 성매매지원센터 '한울지기' 대구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네트워크 새울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 헬터 푸른꿈터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님 / 헬터 불빛 / 자활지원센터 수원여성회전회 부설 어머들우 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어수어수지원센터 / 무지개 힘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수원여성회** 팔달회관지역아동센터 평동어린이집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울주군지부, 중구지부, 고령공동센터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밝은세상, 지역아동센터 어머들우, 지역아동센터 자람터, 지역아동센터 징검다리, 지역아동센터 천국자람터, 지역아동센터 푸른솔, 지역아동센터 햇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님 원터 불빛 자활지원센터 **평화통일하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한국여성평화연구원 모함여성회 바다솔지역아동센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합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서구지역아동센터, 구로솔터지역아동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마산희망지역아동센터,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산북구지역아동센터, 부천나눔지역아동센터, 안산임지지역아동센터, 인천부평지역아동센터,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작점심지원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디어운동본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회전회** 김해여성회전회, 김해여성회전회, 광명여성회전회, 광주여성회전회, 군산여성회전회, 김포여성회전회, 김해여성회전회, 대구여성회전회, 목포여성회전회, 부산여성회전회, 부천여성회전회, 서울강서향천여성회전회, 성남여성회전회, 수원여성회전회, 시흥여성회전회, 안양여성회전회, 영광여성회전회, 울산여성회전회, 익산여성회전회, 인천여성회전회, 전주여성회전회, 진해여성회전회, 창원여성회전회, 천안여성회전회, 청주여성회전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강남여성장애인연대 /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아지랑이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 대구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대전여성장애인연대 / '라온' 평생교육원 /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대전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 해를 자립생활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 직업재활/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헬터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동물어학, 충남여성장애인연대 / 다함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다동교육문화센터 / 돌봄 / 일터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 종합지원센터, 시각장애인여성회 / 주간보호센터, 청라장애인여성회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대전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 동북부지회, 서부지회, 경기지부, 고양지회, 구리남양주지회, 김포지회, 성남지회, 수원지회, 안양지회, 양주지회, 용인지회, 의정부지회, 의왕지회, 파주지회, 원주지회, 경남지부, 거제지회, 거창지회, 김해지회, 마창진지회, 진주지회, 경북지부, 경주지회, 구미지회, 상주시회, 안동지회, 의성지회, 칠곡지회, 포항지회, 전남지부, 광양지회, 나주시회, 목포지회, 영암지회, 화순지회, 전북지부, 정읍지회, 충남지부, 서산태안지회, 천안지회, 홍성지회, 부산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전주지회, 아산준비부)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 총 263개 단체(중복제외)

## 시민사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군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한성장학회여성성정질환연구회, 문화재단이프로파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성태지평,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인권옹호하는사람들, 여성건강연대, 이화민주동우회, 인권정책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충북여성연대, 한국YMCA전국연결,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희망먹거리네트워크, COOP생협 KYO한국청년연합회 총 39개 시민사회단체

총 305개 단체

## ■ 기념식 사회

권해효 (여성연합 홍보대사 · 배우)

최광기 (전문사회자)

## ■ 오프닝 퍼포먼스

유현덕 (한국캘리그래피협회 대표)

## ■ 축하공연

박해미 (뮤지컬 배우)

라틴 보스톤

## ■ 특별나눔

한국캘리그래피협회특별 전시회, 퍼플난장

## ■ 사진촬영



## ■ 연출자문

유수훈 숭 엔터테인먼트 대표

## ■ 준비한 사람들

기획 · 총괄 : 유일영 여성연합 국장

여성연합 사무처 : 박차옥경 사무처장, 양이현경 정책실장, 김은희 여성미래센터 사무국장, 오보람 부장, 장수진 부장

김손경미 활동가, 김현수 활동가, 김수희 활동가, 이형규 인터넷활동가

기획 · 실행위원 :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유일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

회 활동가, 김민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활동가, 김성숙 경기도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오경진 전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최민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업부장, 최희진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디자인 · 무대 : 새터 C&C

음향 : 조은음향

수화 통역 : 김광길, 이금란

## ■ 자원활동가

김민성, 김예린, 김태연, 김현정, 김화선, 남소영, 문화주, 박상희, 박찬은, 박해니, 서울, 석지윤, 석진언, 성단샘, 신새롬,

신혜정, 심희원, 유수, 유수빈, 윤민혜, 이나리, 이수지, 이영훈, 이원빈, 이주혜, 이태민, 이해빈, 전소영, 정다운, 정시윤,

정지은, 조도보라, 조은비, 한민화, 한영동 / 총 35명



권해효



최광기



유현덕



박해미

# 나눌수록 더 행복한\* 적금

나눌수록 세상은 더 행복해지기에  
KB사랑나눔적금이 기부와 봉사의 기쁨을  
우대이율로 돌려드립니다.  
나눌수록 더 행복한 세상,  
고객과 KB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 [KB사랑나눔적금]



## KB사랑나눔적금

기부금: 기부왕 우대이율 및 봉사왕 우대이율 등록 건당 500원을  
기부금으로 출연하며 기부비용은 KB국민은행이 부담합니다. (기부금 한도 1,000원)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공동 명의 불가)
- 저축금액: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원 단위)
- 상품유형: 정액적립식 예금
- 계약기간: 3년제
- 세제관련: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가능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적용이율 (세금공제 전, 2014.12.17 기준)

- 기본이율: 연 2.8% / 우대이율: 최고 연 1.0%p (기부왕에서 정하는 조건 충족 시 적용)
- [기부왕]: 연 0.3%p 우대 (계약기간 중 기부 또는 후원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봉사왕]: 연 0.3%p 우대 (계약기간 중 봉사활동을 실시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천사 1004]: 연 0.4%p 우대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시점의 총 저축금액(원금)이 1,004만원 이상인 경우)
- 최종이율: 최저 연 2.8% ~ 최고 연 3.8% (최고이율은 기부왕, 봉사왕, 천사 우대이율 모두 적용시)

기계의 희망 | IBK기술금융

취업의 희망 | IBK알자리창출

노후의 희망 | IBK생명보험

강조의 희망 | IBK문화콘텐츠금융

#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기업은행

기업과 국민의 희망을 키워온 IBK기업은행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혁신적인 생각으로  
국민 모두의 평생행복을 또 한번 이어갑니다



##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4년 한 그루의 나무로 시작해  
우리강산을 푸르게 푸르게 숲을 일궈온 30년  
우리는 이제 사람들 가까이에서  
어디에서나 매일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일굴 수 있는  
작은 숲을 도시 곳곳에 만들려 합니다  
집 앞에서, 학교에서, 동네 공원에서  
놀 사람과 함께하는 작은 숲들이  
당신의 생활 속에서  
더 큰 숲으로 커갈 것입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동네 앞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을 만들고  
도시 근린 공원을 되살려, 흩어져 있던 주변의 숲들이 이어지는 더 큰 숲을 만들어 갑니다